

‘세계의 중앙’으로 도약하는 중앙대학교의 신 르네상스 운동

이 종 훈 중앙대 총장

이종훈 총장은 작년 2월 총장에 취임한 후 ‘신 르네상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 르네상스 운동은 복고주의적인 온고지신이나 15세기 유럽 스타일의 문예부흥 운동이 아니라, 대학발전의 기본적인 틀과 기둥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작년부터 전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신 르네상스 운동의 실천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 ② 우리의 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 ③ 우리의 자세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 ④ 우리의 노력은 모두가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다.

중앙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신 르네상스 운동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창조적인 마인드로 거듭나 21세기를 맞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자는 다짐과 실행이다. 올해로 본교는 개교 81주년을 맞았다. 작년에는 과거를 거울 삼아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설정하기 위해 『중앙대 80년사』를 영상, 책, 사진집으로 만들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대학에도 예외 없이 찾아온 IMF 위기의 극복이다. 교직원, 공무원,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IMF 경제특강’을 하는 이 총장은 “올해는 성장보다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조직, 교육단위 개혁을 완성하고 시설, 건물 등 하



드웨어 보강작업에 착수한다. 17개 단과대학과 12개 대학원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총장 임기 4년 중 전반기 2년은 교육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부터 2년은 교육의 하드웨어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학사운영 정책에 있어서도 전반기에는 화합과 발전을 위해 소프트 정책을 실시했으나 후반기에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보다 강한 학사운영으로서 하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전 중앙가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 르네상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97년 교육부가 선정하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98년도 교육개혁 분야 중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 전국 대학 중 당당히 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또한, 21세기형 학문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에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부와 계열로 조정하는 교육단위 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우리 중앙가족은 '99년도에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7년 3월부터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에는 주로 연구실적만을 승진, 재임용에 반영하였으나, 연구실적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 기업적 등도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과 연구비 차등지급 및 안식년, 포상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수들에게 연구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교수의 연구업적에서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는 중앙대학교 "국내외 전문 학술지 목록"에 등재된 학술지에 조교수는 1편 이상, 부교수는 2편 이상, 교수는 3편 이상 논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99학년도 입시부터 모집단위를 학부와 계열로 함으로써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수·직원이 야근

시에 서명만으로 무료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연구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안성 캠퍼스는 문화, 예술, 외국어 중심의 전일제 캠퍼스로 가꾼다. 또 현장 산업대학을 만들어 산업체 인력을 재교육하고 캠퍼스를 주민들의 평생교육 장소로 개방한다. 등록금 동결, 환치손 증대 등은 대학재정 확보의 적신호. 이를 위해 우선 총장부터 관공비를 50% 줄이고 예산과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교육단위는 모집단위를 학부와 계열로 광역화하였다. 그리고 지식·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 강화와 우수학생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그 초기작업은 화상회의로 양 캠퍼스간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투자', '박물관대학' 등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쟁력있는 학생 배출을 위해 학생, 연구, 교육에 기업의 품질관리제도(TQC)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교육 하드웨어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건물이나 교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캠퍼스에는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중앙 예술의 전당 및 국제대학원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 대학극장 자리에 첨단 전자정보통신 강의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사비 3백여 억 원 규모의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 캠퍼스

에도 10만여 평의 부지에 산학연구단지인 휴먼테크노



빌을 건설하는 한편, 신설된 체육과학대학의 건물을 신축하고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생활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휴먼테크노빌에는 우선 경기도 안성시의 유기 박물관을 유치하였다. 메디칼 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에도 중앙대학교는 작년에 이어 신 르네상스 운동의 전개로 지속적인 교육개혁 추진과 함께 교육시설을 과감히 확충함으로써 세계 속의 중앙대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중앙대학교는 교육부 '96, '97, '98교육개혁추진 평가에서 재정지원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지원 우수대학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 휴먼테크노빌 조성 -

제2캠퍼스 10만여 평 부지에 2007년 완공 예정으로 조성중인 이 단지는 영상미디어센터, 공예단지,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관과, 고등인력개발센터, 컨벤션센터, 지역정보센터 등이 들어서는 교육·정보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기업 인큐베이터 및 각종 연구소가 들어서는 연구·기술관, 그리고 이들 각 구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지원하게 될 지원시설관 등

4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 메디컬센터 건립 -

서울 흑석동 중대부속 남고와 여고가 떠난 자리, 7천여 평의 부지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1천 병상 규모의 메디컬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1세기의 대학모델을 갖추어 갈 예정이다.

- 중앙 예술의 전당 및 국제대학원 -

중앙대는 21세기에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발전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 흑석동 캠퍼스의 '중앙 예술의 전당 및 국제대학원'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인 중앙 예술의 전당 및 국제대학원은 총 1백 30억 원을 투자한 연면적 3천5백여 평 규모의 종합 예술공연장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내년 8월쯤 화강암과 붉은 벽돌로 외장을 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 곳에는 극장, 전시관, 실기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 완벽한 실습시설을 갖추게 돼 그렇지 않아도 높은 경쟁력을 갖춘 예술대학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5백석 규모의 실습용 대극장에는 회

전식 무대와 최첨단 조명 음향 시설을 갖춰 학생들의 수업은 물론 공연 리허설 등 완벽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 건물 내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동시통역실을 완비하고 국제대학원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제1캠퍼스와 안성 제2캠퍼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 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학정보화에도 한발 앞서가게 된다. 

